

경북 지역주도 대학 대전환 '경북형 RISE체계' 추진 박차

경상북도는 18일 구미대에서 도내 전문대·일반대 분과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 교육협력과, 경상북도 RISE센터, 33개 대학 관계자 등 각각 40~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역주도 대학혁신을 위한 경상북도 RISE 계획 수립과 관련해 지방대학 관계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23일 경산 소재 경일대에서도 '경상북도 RISE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RISE는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학정책이다.

이철우 지사는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중앙정부에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정부는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기치 아래 지역주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RISE체계를 도입했다.

도는 지난해 3월8일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된 아래 경북형 RISE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방안 등에 대해 도내 33개 대학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지역협업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활발히 운영하면서 대학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왔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경북 '1시군 1히트'... 농식품 특화 나선다

경북농업기술원, 시군 농식품 연구·지도공무원 연찬회 기능성 소재 활용 케어푸드·웰니스 상품화로 고부가가치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K-경북푸드 세계화'에 걸맞은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17일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도 단위 식품창업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시군 농식품 연구·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도정 농식품산업 핵심전략 'K-경북푸드 세계화'에 발맞춘 지역 특화작목을 기반으로 1시군 1히트 농식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K-경북푸드로 상품화하기 위한 지역 가공산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다.

연찬회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히트 상품으로 '포항 우리쌀 맥주' '영천 오곡 한입 프로틴바' '상주 사인머스켓 청' '경산 과일 요리당' 등 시군별 상품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분기별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10월 성과 공유를 위한 팝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0년부터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식품창업 경쟁력 육

성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8개소를 구축했고 전국 최초로 도 단위 농식품기술자문단을 운영해 농업인 등 가공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창업과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창업한 가공경업체 경영분석 결과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 매출액이 1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우수 가공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청년농이 생산하는 K푸드 기획보도, 우수 농특산물 맛방 홍보, 경북K디지털 팝업스토어 운영, 온라인 채널 협업 판촉전, 라이브커머스 등 농식품 유통 마케팅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농식품 수출 경진에서 성주 '알일이푸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농업기술원 김미수 지도사는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은 농산물의 기능성 가공원료 소재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웰빙 트렌드에 맞춰 기능성 소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K-경북푸드 세계화'에 걸맞은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17일 2024년 도 단위 식품창업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를 활용한 케어푸드, 스낵케어 등 웰니스 상품화를 통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숙 원장은 "시군 농산물종합가공

센터 1히트상품 개발로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비를 통해 농업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다"며 "2030 대구 경북 신공항 시대를 맞이해 경북 농특산

물을 활용한 가내식 가공기술 개발로 경북이 K-푸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경남 '수소전문기업' 지역 6개사 추가 지정

네오시스템·월드뷰 등... 道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 통한 기업지원 '성과'

경상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소전문기업'에 도내 6개 기업이 추가 지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수소전문기업 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20개사를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중 경상남도에서는 네오시스템·대성과워터 주식회사·월드뷰·보경·범한산업·엘프시스템 6개사가 지정돼 도내 수소전문기업은 총 11개사가 됐다.

이번에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된 6개 기업 중 '네오시스템'은 건물용 수소연

료전지 및 개질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월드뷰'는 연료전지 냉각장치 시스템·신소재·건설장비 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경'은 수소 연료전지 및 개질기 생산 기업으로 연료전지 및 개질기 전문 제작 기술과 제품 생산을 통해 수소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범한산업'은 우리 기술로 개발된 전지 스택 및 모듈 구성 요소를 수천급 잠수함에 적용시키는 등 연료전지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에너지 선두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엘프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금속분리판 고무 가스켓을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 용접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공정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대성과워터'는 수소 충전용 설비 제작, 압축기 조립생산 등 수소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수소전문기업 지정에는 도내 기업 비중이 30% 차지하며 그간 경상남도의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을 통한 꾸준한 기업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원창희 기자 whh@skyedaily.com

HIVE
High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2023년도 성과 페스티벌

1. 19.(금) 14:00 - 17:00
2. 20.(토) 10:00 - 17:00

20일 평양리 10-13A, 14-17A에 운영됩니다.

12.0(토) 양양군내 Hi-BUS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과 강원도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2023년도 성과 페스티벌'이 19일 양양 솔비치에서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과 강원도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의 운영성과 공유 확산과 다양한 산업분야 및 직업 홍보를 위한 '2023년도 성과 페스티벌'이 19일 양양 솔비치에서 열린다.

HiVE 사업 성과 페스티벌 19~20일 양양 솔비치서 열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과 강원도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의 운영성과 공유 확산과 다양한 산업분야 및 직업 홍보를 위한 '2023년도 성과 페스티벌'이 19~20일 이틀간 양양 솔비치에서 열린다.

HiVE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소멸 등 위기 대응과 함께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산업이 상생하며 지역 내 현안 해결 프로그램 수행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육부 지원 사업이다.

양양군·고성군·강원도립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HiVE 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 군민들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 고도화, 군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통해 청년취업 지원 개선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과 강원도립대는 호텔과 관광·해양레저 분야를 지역특화 분야로 선정하여 인력양성을 계획하고 지난해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여 평생직업 교육과정(29개)과 지역사회 공헌 과제(4가지), WE, SAVE ECO(환경전문가 양성)를 운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웰다잉(well-dying) 심리상담사양성과정, 파크골프 지도자과정 사업을 진행하여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2023년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결과 사고는 총 102건, 오염물질은 24.7㎏ 유출됐다. 울산항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 남해해경청

작년 해양오염사고 102건 발생... 오염물질 24.7㎏ 유출

남해해경청 분석... 최근 5년간 평균 유출량 대비 87% 감소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해경청)이 2023년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결과 사고는 총 102건, 오염물질은 24.7㎏ 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 유출량(187.7㎏) 대비 87%(163.0㎏) 감

소한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좌초·총돌 등 사고 시 선내 적제된 기름을 신속하게 이적하고 선체 과공복제 및 비상에 인 등 총 62척에 대해 적극적인 배출방

지조치로 오염물질 388.5㎏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 결과로 분석됐다.

지난해 4월21일 울산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어선 A호 화재사고시 남해해경청은 즉시 현장제력을 출동시켜 화재진압을 실시했다.

해양환경공단 선박을 동원, 사고선이 침몰되기 전 안전구역으로 비상 예인을 통해 더 큰 사고를 예방했다.

김창성 기자 jckim@skyedaily.com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는 관내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보훈복지회관 신축공사를 8월 개관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동해시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건립 8월 개관 목표로 공사 '순항'

진입로 확보 등 공정률 33%... 내외부 마감 박차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는 관내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보훈복지회관 신축공사를 8월 개관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1995년 준공된 기존 보훈회관은 5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건물 노후화는 물론 공간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등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갖춰지게 된다.

현재 법면 정리 및 진입로 확보 등 공정을 33%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심규언 시장과 사업부서 관계자가 신축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하고 향후 공사 일정 및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런데 사업부 부족으로 공사에 난항을 겪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시를 방문한 김찬규 강원동부보훈지청장과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결과 12월 국도비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업비 추가 확보로 탄력이 붙은 신축 공사에는 총 72억 여원이 투입돼 보훈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단체별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대회의실, 화원들의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 열린카페 등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갖춰지게 된다.

시는 6월까지 3층 바닥, 옥상 콘크리트 타설 및 내외부 마감, 주변 정비작업 등을 완료하여 8월쯤 개소후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심 시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하며 소외없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천의 중점사업인 보훈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보훈대상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위훈을 널리 선양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